

사회



무너진 야영장 광주·전남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새벽 5시25분께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성암야영장 인근 아산에서 폭우에 무너진 토사가 야영시설을 덮쳐 대학생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휘어진 다리 185mm의 집중호우가 내린 17일 곡성군 오곡면 가정역에 설치된 길이 168.3m·폭 2.75m의 두가교가 범람한 강물에 심하게 파손되면서 옛가락처럼 휘어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식간 250mm '떠돌이 폭우' 공포

광주·전남·북 '집중호우' 양동으로 쏟아부은 듯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다리 붕괴 ... 14명 부상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 국지성 폭우=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현재 강수량은 장성 250.5mm, 영광 영산 231mm, 담양 224mm, 곡성 185mm, 보성 195mm, 광주 119.5mm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비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커 일부에서는 국지성 폭우로 변하기도 했다. 광주의 경우 평균 강우량이 107.5mm였지만, 여수·완도·진도는 2mm~20mm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밤부터 5mm~3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인명·침수 피해 속출=17일 새

벽 5시25분께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성암야영장에서 토사 10여(추정)이 쏟아지면서 야영 시설을 덮쳐 잠을 자던 환경운동가 정모(50·경기도 성남시)씨 등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날 사고는 담양에 시간당 최고 71.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야영장 뒤편 아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숙소용 창문을 부수고 방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또 이날 오전 9시께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에서 집중 호우로 섬진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집에 있던 박모(70)씨가 고립됐다. 또 섬진강 하류의 곡성군 압록 유원지 부근 침곡 마을이 침수돼 주민 50여명이 마을 회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같은 날 새벽 2시30분께에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 1단지 상가와 삼호 아파트 상가·불루시안 아파트·도로·광산구 신촌동과 비아동·서구 마락동 주택 20여 가구도 침수됐다.

영광군 영광읍 주택·상가 21채와 장성군 장성읍 주택 3채도 물에 잠겼

다. 전북 남원과 순창 등 동부 산간지역에 150mm 가량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주민 100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20채도 침수됐다.

◇도로·시설물 파괴 속출=농경지 수백ha 침수=이날 새벽 2시께 곡성군 오곡면 가정역에 설치된 길이 168.3m·폭 2.75m의 다리인 두가교가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무너졌다. 섬진강변 주변 국도 차량 통행도 통제됐다. 오전 6시께는 구례 성삼재 도로와 산동면, 고달을 잇는 군도가 빗물에 잠겨 통제됐다.

또 영광의 농경지 267ha를 비롯, ▲담양 50ha ▲곡성 50ha ▲구례 42ha 등 농경지 409ha가 물에 잠겼으며, 축사와 양계장, 농기계 저장 창고 등도 물 피해를 당했다. 광주는 광산구 비아동 등 농경지 수십 ha가 침수됐다.

이밖에 곡성 4곳 등 도내 8개 도로 비탈면이 유실됐고, 지방하천 16개와 소하천 26개소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유실됐다.

한편, 광주시는 긴급 복구반을 구

■ 폭염 속 폭우 왜?

스콜과 비슷 ... 한반도 아열대화 때문

최근 햇볕이 쨍쨍 쬐다 기습적으로 소나비를 퍼붓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장마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는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밀려오게 된다. 이 따뜻한 공기에 태양열이 내리쬐면서 공기가 '열을 받아' 상승하게 되고 위에서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 강한 소나기 구름이 형성돼 비를 쏟아내게 되는 것이다.

8월의 이런 집중호우는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의 원리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국지적으로 지표면이 햇볕에 가열된 후 뜨거운 공기

와 차가운 공기가 자리바꿈하는 과정(대류현상)을 거쳐 짧은 시간에 비를 쏟아 부는 빈도가 많다. 이처럼 이날 들어 광주에 내린 '스콜성' 소나비 횟수는 9회, 지난해 같은 기간(4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갑작스런 소나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한반도의 남부 지방이 '아열대'(월 평균기온 20도 이상)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판·검사 로비 명목 돈 뜯은 조폭 영장

700원 가짜 비아그라 3만5천원 팔아 폭리 조선족 5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피의자 구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주먹을 휘두른 조폭폭력배 김모(31)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께 목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빠를 불구속으로 빼주겠다"며 K(여·27)씨로부터 검사와 판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460만원을 받아채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K씨 오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로비 때문인 것처럼 속여 추가로 1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K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목포지역 모 폭력조직 소속인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소개로 알게 된 K씨의 오빠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말을 듣고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한산 마지막 국산 둔갑 부당이득 30대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17일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32·순천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북한산에서 수입한 바지락 15(시가 4700원)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산물 수출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김씨는 당국의 승인 없이 수입한 북한산 바지락 50t을 여수에 있는 자신의 양식장에 뿌려 키운 바지락을 유통업체에 납품한 혐의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

문수대하주택 대표 구속

북부경찰, 사기행각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4명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수백 채의 아파트를 임대해준 뒤 세입자에게 은행 대출금 등을 떠넘겨 강제 분양을 요구한 문수대하주택 대표 문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사기 행각을 도

다 높은 가격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분양 전원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 경매로 넘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수대하주택 세입자 400여명은 문씨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잠적하자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문수대하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규모가 총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남부경찰, 40대 영장

광주남부경찰은 17일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행해 다치게 한 김모(49)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밤 11시45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송암골게이트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

고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자 남부경찰서 소속 김모(39) 경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16m 가량 질주해 운모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

북한산 마지막 국산 둔갑 부당이득 30대 검거

여수해양경찰은 17일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32·순천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북한산에서 수입한 바지락 15(시가 4700원)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산물 수출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김씨는 당국의 승인 없이 수입한 북한산 바지락 50t을 여수에 있는 자신의 양식장에 뿌려 키운 바지락을 유통업체에 납품한 혐의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